



# 대학 장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 범 | 아주대 학생처장

## I. 장학제도

장학제이란 학업 비용을 원조하여 수학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 등을 주어 학문을 장려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육영제도로써 육영제단으로 육성되어 있다. 이러한 육영제도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뜻있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하는 것과 공제조합이나 대학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제도 등이 있다.

대학의 장학제도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 전액 국비 또는 전액 장학금으로 일정 학업 단위를 수학하며 학생들은 계획적으로 양성되어 국가의 요청과 분배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어지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인의 기부금에 의한 것과 국가장학금에 의한 장학제도로 구분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학제도의 특수한 예로서 연구의 수월성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세계적인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고 있는 노벨상이 대표적인 장학제도의 모델일 것이다.

대학 장학제도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학술활동에 촉매제의 역할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 부의 재분배를 가능케 하며,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 과 학문에 대한 진취성에 동기 부여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대학 장학제도의 확충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 확보하여 육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학제도도 종래의 개념(소극적 정의)에서 근자에는 확대된 개념(적극적 정의)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장학제도를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적장학금과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등으로 구분되어 실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장학제도만으로는 현실에 부응하는 충분한 장학제도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적극적인 학술 발전에의 유인책으로의 제도와 함께 산학협동의 공동 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장학제도의 전환이 시행되어야 한다. 산업 및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학제도의 확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장학제도는 대학별로 서로 상이하고 특수한 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으로 일체화하여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 현

〈표 1〉 A대의 최근 7년간 교내·외 장학금 지급현황

년 도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합 계	
	인원(명)	금액(원)	인원(명)	금액(원)	인원(명)	금액(원)
1995학년도	3,142	2,603,347,000	284	330,662,200	3,246	2,934,009,200
1996학년도	3,417	3,919,632,800	319	380,251,600	3,736	4,299,884,400
1997학년도	3,464	4,637,892,300	227	332,840,700	3,691	4,970,733,000
1998학년도	3,927	6,002,340,100	259	338,134,300	4,186	6,340,474,400
1999학년도	4,370	6,525,387,600	443	560,262,900	4,813	7,085,650,500
2000학년도	3,931	6,181,803,600	434	598,973,200	4,365	6,780,776,800
2001학년도	4,353	6,027,659,900	365	544,192,000	4,718	6,571,851,900

참고 : 연간 등록인원 약 16,000명, 수혜율 약 30% 정도

황을 살펴보고 경쟁하고 있는 대학 사회 현황에 맞추어 어떻게 장학제도가 정립되어져 있는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장학제도의 현황

오늘날 우리 대학들의 장학제도를 보면 대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내장학과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사회단체 등에서 기부하는 장학금 및 동문들이 기부하는 장학금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외장학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교내장학이나 교외장학 모두 시장논리의 경쟁체제로 변하여 가는 대학 현실에 비추어 충분한 장학제도의 확충이나 기금 조성 쪽에 아직까지도 초보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로 인하여 아직 과거 장학제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 처한 현실일 것이다. 물론 근래의 일부 대학들은 조금씩 능동적으로 장학제도를 개발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A대의 경우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하였다. 〈표

1〉은 A대의 최근 장학금 현황을 보여주는데, 과거에 비해 달리 장학금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A대가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신입생장학금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A대의 경우 '95학년도 이전에는 장학금이 현재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장학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에 목적을 두고 신입생 장학에 장학금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학금의 새로운 개발과 다른 여러 가지 대학 개혁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장학생 수혜율도 전국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장학금액에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내외의 IMF 등과 같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장학생 수혜 비율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대학의 경우도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들의 경우가 그렇듯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입금이나 국고보조가 지급처럼 열악한 상황하에서는 장학금을 확대하기란 결코

“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수입원 중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운영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학금을 학비 감면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의 확대는 곧 재정의 빈곤으로 나타나므로 장학 수혜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수입원은 크게 등록금 수입, 법인전입금, 국고지원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운영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미국의 40~45%, 영국의 20~2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고 그만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학금을 학비 감면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의 확대는 곧 재정의 빈곤으로 나타나므로 장학 수혜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마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인상률이 물가 인상 수준을 대비한 6~8% 정도의 인상임에도 학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여기에 장학금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대학은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내외적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확대에 대한 재원은 더욱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장학제도의 종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장학금의 종류는 크게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하여 교내장학은 신입생장학과 재학생장학으로 나누고, 교외장학은 동문기부금과 장학재단의 장학금,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의한 기부금, 산학협동에 의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 받아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신입생장학의 경우에는 성적에 의한 장학금으로 입학성적에 따라서 전액 또는 반액으로 지급하며, 또한 성적에 따라서 재학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하는 것과 1년 간의 기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다. 재학생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와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학들의 장학제도이다.

교외장학제도를 보면 극소수 일부 대학을 제외하

〈표 2〉 대학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교내+교외)('02-1학기)

대 학	G대	S대	I대	H대	O대
장학금 수혜율	10%	9.47%	9.7%	8.1%	10.19%

자료 : 2002학년도 경인지역 대학장학협의회

〈표 3〉 전체 장학금 대비 교외 장학금 비율('02-1학기)

대 학	A대	G대	S대	I대	H대
전체 장학금 대비 교외 장학금 비율	8.4%	12.9%	14.7%	21.6%	8.3%

자료 : 2002학년도 전반기 경인지역 대학장학협의회

면 동문에 의하여 지급하는 동문장학금과 공공기관 및 민간인이 출연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금 그리고, 산학협동에 의하여 지급되는 산학장학금, 국고보조에 의한 장학금이 대부분인데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내장학과 비교하면 그 실적이 아주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대부분 대학의 전체 장학금 대비 교외장학금의 비율을 보면 교외장학금액이 취약함을 볼 수 있는데, 제도상으로 교외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의 특수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아 보이며, 질대치를 향상시키려면 국가나 산학협동 장학금의 증대와 민간의 기부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사회 및 국가 정책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대학의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기부금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대학의 경우는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으며, 기금 증식을 위하여 8천6백여 개의 펀드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 펀드매니저만도 4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하버드는 총 운영비의 30%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Ivy League)인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등은 물론이고 대부분 유명 대학들이 비슷하며 장학 기금 모금이 매우 활발함을 볼 수 있다.

교외장학제도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동문장학금은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장학금으로서 각 대학들을 보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

고,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형편이 매우 어렵다. 국내 연세대의 경우 동문기부금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그 또한 미비하여 연세대나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발전적으로 우대제 도입 등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중요한 교외장학제도의 한 종류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재단의 장학생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수년 간 계속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그 장학금액도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보다 유효한 제도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장학재단의 장학제도 역시 일정한 출연기금에 의한 운영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IMF사태 후 급격한 이자 수입 감소로 그 절대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해마다 수혜 인원이 유동적이라 대학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학협동에 의한 장학금도 교외장학금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같이 인력개발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정책제도가 될 수 있다. 장학제도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영제도로써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재의 육성에 적합한 대학이라는 실용성을 활용한 산학협동의 장학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장학제도의 현실을 보면 성적사정이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

여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향후에는 대학원의 T/A나 R/A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연구학술에 대한 장학금을 증대시키고, 학부에서도 인턴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한 영재 등에게는 학업성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대한 아이템이나 연구과제 등을 주고 그에 의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발 가능한 아이템 등에 대한 연구에는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기업은 이러한 연구인력에 투자하여 모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 장학금이나 연구개발비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고에 의한 장학금이 있는데 특정 목적에 의한 장학금이 대부분이기에 대학이 주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보면 대학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들이 맡고 있는데 반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예산의 4.3%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 사립대학들이 재정의 평균 20% 이상을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 IV. 장학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대학의 장학제도의 현실을 보면 교내 장학의 경우 대학재정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수혜 대상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장학제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점은 각 학부별로 소위 사회적인 인기도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이는 학문의 불균형으로 심화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 쪽의 인력수급에까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학제도의 편식이 생기고 수혜 대상 역시 한정적이다. 교외장학금 역시 외부의 지원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현실에서 그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장학제도의 개발에 능동적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의 장학지원 부서의 인력에도 문제점이 있다. 현행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내장학금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장학위원회에서 확정된 장학금과 기존의 약속된 한도의 교외장학금을 단순히 운용하는 수준으로서 규정상으로 지급 절차에 자료가 없는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대학의 장학지원은 장학금을 운용하는 팀, 다시 말해서 관리팀과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발굴 확충하는 팀, 즉 개발하고 기획하는 팀으로 나뉘어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확보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도 전문화되어야 하고 경쟁적으로 활발한 기금 유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의 절차와 규정만 따지는 식의 장학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장학재원의 확보 및 발굴에 능동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장학생 관리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장학생의 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우수한 장학생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졸업 후에도 대학의 자원으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졸업 후 모교의 발전에 한 몫을 하도록 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부에 대한 장학제도는 그래도 모자란 재원을 가지고도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석사나 박사는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는다. 국내에서 학위를 할 경우 추후 진로에 대한 비전이 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대학의 대학원예의 연구 장학금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으로는 너무 빈약하다.

“

대학원의 T/A나 R/A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연구학술에 대한 장학금을 증대시키고,  
 학부에서도 인턴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한 영재 등에게는  
 학업성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대한 아이템이나 연구과제 등을 주고  
 그에 의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발 가능한 아이템 등에 대한  
 연구에는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대나 몇몇 우수 대학조차도 박사과정의 우수한 인력에 대한 장학금이 등록금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 대학이나 대다수 대학들의 상황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대학의 교수진도 대부분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하였고, 세계 우수 대학 교수로도 제직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결과도 나오는 추세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학부제도는 물론 대학원 중심의 대학, 즉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비전도 세워 우리도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서 키우고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학생과 유학 오는 유입 타국 연구생에도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며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에 대한 연구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 V. 장학제도의 개선 방안

앞에서 언급한 장학제도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별로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며, 우리 대학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먼저, 장학금의 재정적인 취약점에 대한 방안으로

는 첫째로 대학은 발전 기금의 수립 확충이 필요하다. 대학은 장기적으로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발전 기금 모금 기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육사처럼 발전기금 재단을 설립하고 그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투명성을 확립하고 또한 기부자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발전 기금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 재정의 투명화와 기금 용도의 명확성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 및 의지가 있어야만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 유지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 사용용도 규정으로 “발전 기금은 장학금과 시설투자자과 기자재 구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등의 명확한 규정 등의 수립이 있을 수 있겠다. 발전 기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모든 대학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금 구조를 개설하고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이 이제는 '기여입학제'와 같은 재정 확보 정책을 각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기여 입학자의 신분 비밀보장과 졸업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여금의 투명한 사용과 철저한 관리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

다. 이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시범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기여입학제'는 시행에 부조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제도인 만큼 철저한 관리 방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의 정착이다. 미국이나 서구의 사회처럼 당장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 성급한 바람일 것이다. 우리도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 등이 사회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대학으로서는 기부자에 대한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주며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전에 자일랜(Xylan)사의 재미교포 김종윤(미국명 스티브 김) 사장이 미국 UCLA 치대에 100만 달러의 거금을 기부한 일이나 국내에서는 얼마 전 아주대학교 동문인 황필상 박사는 연간 2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는 본인 창업회사의 200억 상당의 주식을 모교에 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미덕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그러한 기업의 사회 환원의 사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국고지원금이나 대역장학금제도 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단기간에 대학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우리 대학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장학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교육 예산 확보 공약을 실천하는 일이며, 대학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의 20%대로 올리려는 노력을 정부는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도 자체 재정 일부나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대역장학금 등의 방안을 확충하고 취업 후 경제적 여유가 생길 시에 이를 반환토록 하는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장학 수혜 대상의 다양화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장학금 내지는 기계공관장학금으로서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장학금에 대하여 소극적 내지는 수동적인데 이러한 틀 안의 장학생만을 양성하기보다는 성적 등 기타 기계공관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특성을 갖는 장학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1세기에 걸맞은 세계화·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아래 방학 중 해외 경험을 쌓는다는 학생에게는 목적과 계획서 및 연구(탐방)주제를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 또한 학부생에게도 방학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내지는 과제를 걸고 그에 대한 보고서 또는 연구물을 제출케 한 후 심사를 하여 상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또한 전공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학회의 경우에도 학생지도 차원의 지원비만이 아닌 학회의 활동이나 학회의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장학제도 안으로 흡수하여 우수한 학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산학협동 장학금을 대학이 적극 개발하여 수혜 대상의 편식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국가가 나서 정책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 계속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의 현행 T/A나 R/A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연구장학금의 경우 연구비에 의한 장학금만이 아닌 학교 차원의 학술 연구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장학생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있겠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연구 증대 방안으로 학회 및

“

미국이나 서구의 사회처럼 당장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  
성급한 바람일 것이나, 우리도 사회 회원이라는 기업 윤리 등이  
사회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대학으로서는 기부자에 대한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주며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지원도 장학제도로 흡수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산학협동 장학의 증대 방안이다. 학교  
는 연구소의 지원과 확대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창업지원을 함과 동시에  
연구를 통한 우수한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재원을 확보하여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기  
간 산업에도 도움을 주고 우수한 인력이 학술연구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적극적인 학교의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업이 연구하고 투자하려는 사업 및 기술 등을 파  
악하여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연구소 및 인력  
을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능동적인 자세 및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대학의 장학지원 조직의 개선으로 현  
재 대부분의 대학들을 보면 교내 장학담당자와 교  
외 장학담당자 2인과 팀장 체제이거나 그도 아닌  
담당자 한 명과 조교 1명을 두고 팀장을 두는 체제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발전적으로 장학 재정 확보  
와 유치, 그리고 운용을 위해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  
이다. 물론 대학도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인원 감축에 역행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안  
목으로 장학금을 관리하는 인원과 함께 장학금을  
개발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  
불어 장학생의 관리 문제인데 요즘 장학생이라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보면 장학생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장학금 수혜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는 듯 하  
다. 이러한 데에는 장학생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  
며, 장학지원 부서는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  
는 행사 등을 계획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장  
학생의 졸업 후의 거취에 대하여도 파악하여 모교  
의 발전에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호환적 체계를 갖추고 장학 수혜 졸업생 등의 관리  
에도 유관 부서, 즉 동창회나 사회 진출 부서 등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장학제도란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을 돕거나 학  
술연구자에게 연구비 등을 주어 학문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대학들은 확보된 장학재원 안에  
서는 비교적 잘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상황에서는 장학금 재원의 확대에 한계  
에 도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장학생 수혜 대상의 다  
양화 및 시대에 맞는 장학제도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적인 문제는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에 난관



을 주고, 다양한 종류의 장학제도 개발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장학생의 관리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 실질적인 장학생 관리가 끝나는 관행이 대부분 대학들의 모습이다. 또한 장학지원 부서도 단순히 장학재원의 운용과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지급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재 대학의 상황에 비추어 먼저 장학재원의 확보에 힘써야 함은 중요한 사명이고, 재원의 확보를 위한 발전기금의 수립과 확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여입학제'의 제도도 정책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인이나 기업은 기부금을 자연스럽게 대학에 기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면 장학지원 부서는 장학제도의 개발에 힘써야 하며 다양한 수혜 대상에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장학재원의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은 재원의 확보와 함께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소외된 수혜 대상이나 전공분야가 없도록 해야 하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자원으로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졸업 후에도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장학지원 부서의 조직 구성도 산학협동 장학금의 확보를 위한 창업지원센터와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서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원의 확보 등에는 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발전적인 장학제도의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며, 장학지원 부서의 구성원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사과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선진국 장학 시스템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기금 사용의 투명성 등의 제도적 구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박범**

#### 박범

아주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Ohio University에서 산업시스템공학 석사, Iowa State University에서 휴먼컴퓨터인터페이스 분야 인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아주대 학생처장 및 산업정보시스템공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휴먼인터페이스, Human Informatics, ITS, 감성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산업인간공학』 등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 80여 편의 학술회의 발표가 있다.

